

### 엄홍길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16좌 등반

〈4〉 충북 민주지산  
(삼도봉)



지난 24일 4차 산행에 참가한 등산 애호가들이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민주지산(삼도봉) 물한계곡을 따라 걷고 있다. 민주지산(삼도봉)은 전북과 경북, 충북 등 3도가 만나는 화합의 산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빗소리·산새소리... 화합의 산 오르는 길 자연의 합주

TRUE PRODUCTS, REAL PEOPLE



*진실은  
만나다*

즐거운 척, 좋은 척, 괜찮은 척...  
우린 그렇게 연기하며 산다  
그래서 산을 만나면 진실해진다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WWW.MILLET.CO.KR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

“비 오는 날 일부러 산행을 하기도 합니다. 우중(雨中) 산행은 잡념을 없애주고, 육체·정신적으로 안 좋은 것을 씻겨 내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한국 명산 16좌 원정대 4번째 행선지는 충북 영동에 위치한 민주지산·삼도봉.

삼도봉(해발 1176m)은 매년 10월 10일에 충북도·경북도·전북도의 ‘3도 만남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화합의 산’이다. 이번 산행에는 광주를 비롯해 전남·북 지역에서 420여명의 등산 애호가들이 참여했다.

◇‘화합의 산’ 삼도봉=광주에서 88고속도로와 대전~통영 고속도로를 타고 충북 영동면 물한계곡(勿蘭溪谷)에 도착하는 3시간 내내 과연 제대로 산행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굵은 비가 쏟아졌다. 엄 대장은 지난

나무 숲길~삼마골재를 따라 삼도봉까지 오를 예정이었으나, 계속되는 비로 인해 안전산행을 위해 코스 중간에 위치한 음주암 폭포까지로 코스를 단축했다.

이날 엄 대장은 산뜻한 노란 재킷에 짙은 회색 반바지 차림을 했다. 자연스럽게 드러난 왼쪽과 오른쪽의 종아리 근육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 굵금증을 자아냈다.

엄 대장은 “1998년 안나푸르나에 4번째 도전할 당시 추락하는 세르파를 구하려다 오른발 발목뼈가 180도 꺾여 돌아가는 부상을 입었다. 7600m 지점에서 4500m 지점의 베이스캠프까지 2박3일 동안 혼자 힘으로 기어 내려왔다. 김스를 하며 치료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원상회복이 안됐다”고 부연 설명했다. 치료 당시 의료진은 등정은 물론 걷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 했지만 엄 대장은 끊임없는 재활훈련 끝에 10개월 만인 1999년 4월 다시 안나푸르나를 찾아 4점5기 만에 등정에 성공했다.

◇우중(雨中) 산행의 매력=굵은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행에 섰듯 나선 한 등산객은 스스로를 엄 대장 ‘추종자’라고 표현했다. 엄 대장과 산행을 같이 하면 힘이 안 들고, 산이 더 좋아진다는 것.

황룡사를 지나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한 지 1시간여가 지났을 때 엄 대장은 음주암 폭포를 100m 앞둔 지점에서 안전을 고려해 되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끊임없이 비가 쏟아지며 계곡물이 시시각각 불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밀레 스태프들은 무릎보호대를 붙여나 계곡물을 가로질러 자일을 설치해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출발한 지 2시간여 만에 원정으로 되돌아오자 온몸은 빗물로 흠뻑 젖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상쾌했다. 민주지산과 삼도봉의 맨 얼굴은 비구름에 가려져 끝내 볼 수가 없었다.

한국 명산 16좌 원정대에 3차례 참여했다는 주부 민향숙(51·광주시 광산구)씨는 “4년전부터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하게 됐다”며 “생활속에서 힘든 산행을 떠올리면 절로 웃음이 나오고, 힘이 난다”고 말했다.

엄 대장은 “한국명산 원정이 거듭될 수록 참여하는 등산 애호가들이 늘어나고, 열정을 느낄 수 있다”면서 “참가자들이 산행을 즐기면서, 자연과 어울리는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광주·전남북서 420여명 함께 물한계곡까지 우중산행 3시간 문명 잇고 참 니를 만나는 시간

24일 충북 영동면 물한계곡 주차장에서 민주지산(삼도봉)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우중산행 예찬론을 펼쳤다.

“문명세계에서 나는 인위적·인공적 소음은 스트레스를 주지만, 빗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는 마음을 순화·안정시켜줍니다. 또 도시에서 갖지 못하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며 ‘참 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엄 대장을 선두로 형형색색의 비옷을 챙겨 입은 등산 애호가들이 뒤를 이었다. 물한계곡을 따라 오르는 동안 계곡물이 울울탕탕 시원스레 흘러내렸다.

계속되는 비에 대해 누구는 마침 칠월칠석(음력 7월 7일)에 건우·직녀가 해후해 흘리는 눈물이라 했고, 다른 이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북상으로 내리는 비라고 풀이했다.

당초 산행코스는 물한리 주차장을 출발해 황룡사~자



빗속에서 산행을 선도하고 있는 엄홍길 대장.